

김용민브리핑

2017년 1월 12일 목요일

발행처 일곱시간행불그네

홈페이지 <http://www.poddbang.com/ch/9938>
 전자우편 kimyongminpd@gmail.com
 텔레그램 <https://telegram.me/kimyongmin>

전통방송 속성! 최고의 맛은 알싸한홍어	1599-6456, 010-9384-7970 alssahan.co.kr
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 정성농장홍삼	041-754-0884, 010-9754-6972 jeongseongfarm.com
시대와 삶을 함께 읽는다! 한국현대생활사	창작과비평사 031-955-3333 goo.gl/YDYjDW
바로 잡힌 글판, 건강한 인생 바디로직	070-8220-5796 store.bodylogic.co.kr
무료 웹 애니메이션 채널 좀바라TV	032-258-6261 zombara.com
최고급 러시아 냉동대게 대게직거래장터	1644-9047 cafe.naver.com/snowcrab09
안티요요! 다이어트 쇼핑몰은 비타샵	031-783-6007 vitashop.co.kr
예쁜 구멍이 쏠! 장 청소는 미궁장사랑	070-4115-0365, 010-2892-0365 jangsarang.com
아이에서 어른까지 안심 사용하는 수아비스화장품	1688-9113, 031-717-1613 www.suavisslab.com
한 번 가면 계속 가게되는 풍무양고기	031-902-9292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희포시즌프라자 2층
세계 최고 브랜드에 10년 품질보증 매트리스엠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5번길 28 www.mattressm.com
진보가 만든 상품판촉물은 내피알	032-519-4800 nepr.co.kr
일반 짜장 파스타 맛에 취했다 킹닭갈비	070-4217-7179 goo.gl/XYfR9D
김용민 브리핑 대리운전 브리핑대리운전	1522-9687 박근혜 구속시 1회 무료이용
정통 포루투갈 에그타르트! 에그타르트 타르트팜 킷점	facebook.com/tartfarm13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2602 레이킨스몰 154호
김치맛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이담채김치	1544-4586 edamche.com
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 전창걸의새싹땅콩차	070-8635-1288 전창걸.com
축하 위로 고백 응원에는 좋은사람과플라워	1566-0263 flowergood.co.kr
월1만원 황제보령커피 그리고 월7천원온전자보험카페	02-849-9730 cafe.daum.net/7000kim
내 아이 먹고 먹을 수 있는 와우전복	010-2443-0818 wowabalone.modoo.at
한우 사육에 가미수에 팔팔 끓인 연지연곰탕	0-10-7252-1114, 031-989-9968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5

노후핵발전소 폐쇄
신규핵발전소 확대중단!

잘가라! 핵발전소




아세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요!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2014년 4월 15일의 비밀

김용민 / 김용민브리핑 대표 프로듀서



우리의 관심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애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4월 16일 전날에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가 사과했고요, 국가정보원장 역시 사과했습니다. 어떤 건으로? 국가정보원이 탈북자인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기 위해 조작된 증거를 내밀었다가 발각됐고, 법원이 이를 확인해준 건으로 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대선 개입 사건에 이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국가정보원 소유의 배로 강력하게 의심되는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우연한 일일까요?

한편 그날 박근혜의 사과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박근혜의 말은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해 어떤 국민을 간첩으로 몰았다는 점을 사과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엉뚱하게도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 또 국정원의 철저히 못한 관리체계의 허점만을 지적했습니다. 2014년 4월 15일 KBS 9시 뉴스에서 보도된 박근혜의 발언을 소개합니다.

“유감스럽게도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히 못한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나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증거 조작이라는 범죄행위, 이건 국정원의 관행이었다”는 말은 아니었을 테고요, 국정원의 철저히 못한 관리체계의 허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증거를 엉성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걸렸느냐”는 질책으로도 들립니다.

확실한 것은 이튿날, 세월호가 침몰하고 정부가 구조를 안 해서 305명이 희생됐고, 이로써 국가정보기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간첩으로 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전대미문의 국가폭력 국가범죄는 감춰졌다는 점입니다.

4월 15일과 4월 16일의 수상한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오 | 늘 | 의 | 김 | 용 | 민 | 브 | 리 | 핑

■ 1월 12일(목) 1부 | 세월호 참사 전날 차-국정원 수상한 정황

[오프닝] 박근혜는 '간첩증거 조작'을 사과하지 않았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최태민, 생전 스위스로 거액 빼돌려”...그럼 누구 돈?

-“최순실 어머니인 계모 임선이가 최태민 독살 의심”

-“박근혜, 작년 만부커상 받은 한강에 축전 거부했다”

[뉴스듣기능력평가] 블랙리스트 소설가 한강 관련 퀴즈

[경제의 속살] 이완배 민중의소리 기자

-이 정도면 정신분열, 이재용 “합병 결정 내가 안 했다”

-바우만 별세...“불평등 감수해야 하나?”에 대한 대답

[공화국 논평] '제2 태블릿PC' 제출 장시호에 대한 조치

최태민 아들 최재석 씨 폭로

한국일보 “최태민, 스위스로 거액 빼돌려”

최태민이 생전에 스위스로 거액의 재산을 빼돌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최대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의 해외 차명재산을 뒷받침하는 상황이다. 이걸 독일 수사당국이 추적하고 있는데, 이미 고발뉴스와 인터뷰를 했던 최순실의 이복 오빠인 최재석씨는 한국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은 새 밭의 피에 불과하고, 스위스에 가장 많다”고 밝혔다. 1985년부터 종잡듯이 스위스에 있었기 때문에 3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수조원대로 불어났을 것이란 이야기다.

한국일보 “‘朴 대통령’ 만들려 1조원 모아”

이어서 한국일보의 최재석씨 인터뷰 보도, 최재석씨는 최태민이 돈을 모은 이유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아버지가 1980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전두환에 대한 복수심이 생겼다. 그래서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1조원을 목표로 돈을 모았다. 영남대 재단의 재산을 팔거나, 청와대에서 갖고 나온 돈이거나. 그런데 돈을 모은 방법을 잘 모른다. 그러나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아버지는 나에게 박근혜를 대통령 만드는 건 무리인 것 같으니 돈을 돌려드려야겠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그러고 나서 타살 당한 것이다.”

한국일보 “최순실모가 독살한 것으로 의심”

계속해서 한국일보의 최재석씨 인터뷰 보도, 최재석씨는 자신의 아버지인 최태민이 모은 그 돈을 노린 당시 부인 즉 최재석의 계모인 임선이 씨 등으로부터 독살됐을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당시 중국에 있던 최재석씨는 아버지가 1994년 4월 이후 연락이 끊기면서 이상한 김새를 느꼈다고 했다. 이에 따라 2개월 후 최재석씨가 귀국했지만 그때는 이미 아버지가 ‘암매장’된 후였다고 했다. 최재석씨는 “당시 박근혜의 집으로도 갔는데 박근혜도 사망 사실을 모르고 아버지를 찾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한 기업 회장으로로부터 최태민은 4월 18일에 사망했고 이미 강패들이 와서 그를 매장했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소꿉놀이

東亞日報 “朴, ‘맨부커상’ 한강에 축전 거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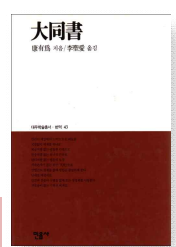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맨부커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씨에게 축전을 보낼 것을 대통령 박근혜한테 건의했지만 박근혜가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특검이 이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인데 결국 축전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 명의로 발송됐다. 왜 그랬을까? 한강씨는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소설 ‘소년이 온다’를 썼다는 이유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있었다. 특검은 한강씨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을 박근혜가 축전을 거부한 이유로 보고 있는데, 그럼 박근혜도 블랙리스트를 인지했을 가능성도 남는다.

한겨레 최순실, 국정 역사교과서에도 개입

최순실이 국정역사교과서 문제에도 개입한 정황이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에서 드러났다. 특검은 최순실이 2015년 10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앞두고 작성된 대통령 말씀자료를 미리 받아보고 수정했다고 밝혔다. 최순실은 말씀자료에서 ‘확고한 역사관과 자긍심을 심어주지 않으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직접 수정해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내용은 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한 최순실 소유의 태블릿PC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확인했다. 당시 박근혜는 최순실이 수정한 부분을 그대로 읽었다.

jtbc 박 자문의 “세월호 직후 리프팅 맞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17일과 21일에 대통령 박근혜의 왼쪽 턱에 시술 흔적이 발견됐다고 jtbc가 보도했었지? 그런데 박근혜의 피부 자문의였던 연대세브란스병원 정기양 교수가 2014년 4월21일에 나타난 박근혜 얼굴의 주삿바늘 흔적은 리프팅 시술을 받은 것이 맞다고 확인해줬다. 그러면서 시술한지 며칠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전날인 15일이나 당일인 16일 아침에 박근혜에게 리프팅 시술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오늘을 읽는 책
康有爲 『대동서』

소원을 말해봐

국민일보 황창규 “SK-CJ 합병 막아달라”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해 2월 대통령 박근혜와의 독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을 막아 달라’는 민원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던 SK와 CJ의 합병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금지’ 결정을 내리면서 실패로 끝났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KT는 SK와 CJ의 합병반대 논리를 담은 보고서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동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의 이권을 챙겨준 KT가 최순실의 위세를 이용해 경쟁 사업체의 합병을 가로막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한겨레 차-최태원, ‘사면 거래’ 녹취 확보

2015년 수감중이던 최태원 SK 회장은 8·15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지? 그런데 정부의 특별사면 공식 발표 사흘 전에 최태원 회장은 교도소에서 사면과 관련된 대통령 박근혜 측의 요구를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면을 해줄 테니 경제 살리기 등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요구였는데 이런 대화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입수한 것이다. 특검에 따르면 SK수펙스추구협의회 김영태 위원장은 2015년 8월10일 복역 중이던 최태원 회장을 찾아가 “박근혜가 사면을 하기로 하며 경제 살리기 등을 명시적으로 요구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특별사면에 대한 보답 차원으로 SK 쪽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 설립에 총 111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최순실을 몰랐다고?

서울신문 “차, 최순실에 재단 통합 말할 것”

최순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사실상 장악했다는 증거가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났다.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 사이의 통화 녹음 내용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안종범 전 수석은 정동춘 이사장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통폐합할 예정이며 대통령 박근혜도 최순실에게 말해 둘 것이라고 이야기 한다.

검찰 측은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이 두 재단의 설립과 운영, 해산의 전 과정을 주도하면서 개입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우병우, 최순실 알았다... 위증 정황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난해 봄 미르재단의 이성한 전 사무총장을 조사했다는 진술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김형수 미르재단 초대 이사장이 이 같은 내용을 검찰에 진술한 것인데, 민정수석실이 일찌감치 최순실의 존재와 미르재단의 문제를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앞서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을 모른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위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반기문, 귀국 전부터 위기

KBS 美 검찰 “반주현, 가족 명성 이용”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 씨는 문서를 위조해서 사기를 친 혐의로 경남기업에 59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뉴욕연방검찰이 이 사건의 전모를 파헤쳐, 반기문-반주현 부자를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미연방검찰, 미법무부는 물론 FBI 국제부패전담반까지 장기간 합동수사한 끝에 기소에 이르렀다. 미 당국이 그 만큼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검찰의 기소장에는 반기문 전 총장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연방검찰은 기소장에서 “반주현 씨가 경남기업에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가족의 명성’을 이용하려 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潘, ‘특별 의전’ 요구했다가 퇴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측이 귀국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에 의전을 요청했다가 거절 당했다. 인천공항이 특별 의전을 요구 받았지만, 전직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예우 규정이 없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반 전 총장 측이 공항 귀빈실 사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반 전 총장 측 이도운 대변인은 “귀국과 관련한 의전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고 했었지? 귀빈실 사용쯤은 의전도 아닌 모양이다.

엘시티 의혹

東亞日報 “새누리 배덕광에 수천만원 건넨”

부산 엘시티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영복 엘시티 회장으로 부터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검찰은 지난해 12월 배덕광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5000만 원가량의 5만 원권 여러 묶음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배덕광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배덕광 의원은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의 칼럼

한겨레 “보수 후보 반기문이란 부조리”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박용현 한겨레 정치에디터의 ‘보수 후보 반기문이란 부조리’다. “사실 유엔 사무총장 출신이 ‘보수’의 환호를 받는 대선 주자가 된 현실 자체가 부조리다. 유엔을 이끌었던 지도자라면 국제기준의 눈높이로 한국 사회의 퇴행을 성찰할 테고, 국내적 시각에 머물러 있는 여느 정치인보다 훨씬 진보적이 되는 게 자연스런 귀결이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방한 뒤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자. 그는 한국 정부의 과도한 시위진압을 비판하는 데 머물지 않고 전교조 인정,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죄) 폐지, 삼성 등 기업의 노조활동 보장 등을 권고했다. 이밖에도 유엔은 사형제 폐지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을 요구해왔다. 정부가 동성애자 등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발언을 적극 방지하고, 학교에서 다양한 성적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라는 권고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보수’는 질겁할 주제들이지만 민주주의, 인권, 표현의 자유 등 유엔이 지향하는 가치를 제대로 밀고 나갈 때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주제들이며, 유엔은 이미 그 해결책을 보편적 국제규범으로 세워놓았다. 이제 고국에 돌아온 반 전 총장은 이들 규범을 국내에서 실현하는 데 앞장설까, 아니면 정부가 그래 왔듯 유엔의 기준과 권고는 대충 무시해도 된다는 입장을 취할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그의 행보는 후자 쪽을 가리키고 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이 나라의 불행이자 반기문 개인의 추락이다.”

1월 16일 김용민 브리핑 개편

민주 정의 평화의 수행자
정원스님 시민사회장



빈소 | 서울대병원 장례식장(대학로) 13,14호실

장례위원 모집

가시는 길 함께 한 장례위원을 모집합니다.
- 장례위원비 : 1인 1만원 이상
- 모집마감 : 1월 13일 금요일 오후 12시
- 장례비용후원 및 장례위원비 입금계좌
신한은행 110-371-195277 안지중
- 명단 취합메일 : jungwonbigu@gmail.com

장례일정

1월 10일(화) 공석 장례일정 시차 (조문기간 1월10일~13일)
1월 13일(금) 저녁 7시 '추모의 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월 14일(토) 오전 발인(서울대병원 장례식장)-노제(조제사, 청와대, 광화문동)
1월 14일(토) 영결식(평화문광장) / 장지로 출발
* 상황에 따라 영결식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민주 정의 평화의 수행자 정원스님 시민사회장 장례위원회

정원스님 시민사회장

지난 1월 7일 광화문 앞에서 박근혜 세력의 즉각 퇴진과 처벌, 민중세상을 외치며 소신공양하셨던 정원스님께서 1월 9일 결국 입적하셨습니다. 이에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가족과 지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장례 절차를 위임받아 촛불시민들과 함께 장례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원스님의 극락왕생을 빌며 장례를 치루고자 합니다. 정원스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함께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장례위원 모집

-누구든 장례위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 양식에 맞춰 제출하시고 장례위원비를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사이트] <http://goo.gl/tGH5Xo>

-모집은 1월 13일(금) 정오에 마감합니다.

-1인당 1만 원 이상의 장례위원비를 보내주십시오.

-계좌는 신한은행 110-371-195277 안지중입니다.

-입금하실 때는 성함에 '장례위원'을 붙여서 해주시길 요청합니다.